



전북새일센터, 스마트 토탈공예지도사 작품전시회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12일 전북여성가족재단 1층 로비에서 스마트 토탈공예지도사(창업) 창업공동체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새일센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주관 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마트 토탈공예지도사 교육은 지난 4월부터 6월 12일까지 총 120시간 동안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3D프린팅, 3D펜 공예, 소이캔들 공예, 비즈공예 등을 통해 창의적인 색채구성과 EQ개발, 평면과 입체의 감각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멀티 커리큘럼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은 전문 창업상담사의 1:1 맞춤형 상담 및 창업유관기관 간 일자리협력망을 통해 지속적인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기간동안 양말목공예, 레진공예, 캔들공예 등 수료생들의 작품전시회를 통해 창업 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살펴봤다.

전정희 원장은 "여성들의 섬세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변화를 꿈꾸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센터는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여성들이 성공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도통사랑 나눔장터 진행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정복지센터 앞 광장에서 '도통사랑 나눔장터'를 진행했다. 이날 장터는 지난 5월 장터에서 송년근인 기부금 7만 8,000원이 수익금이 만들어졌으며, 장터의 수익금을 재기부하는 기부의 선순환을 조성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재사용, 친환경수세미 등은 나눔장터가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호·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나눔장터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은 "이번 기회에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기부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2024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생활 인구정책 알림서비스 홍보, 시정 홍보 문자 알람서비스 신청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면서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나눔 행사가 되었으며, 수익금은 주변의 취약계층을 위해 뜻깊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 시행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11일 관내 유치원을 방문해 실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시행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는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구대,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안전드림 앱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보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지문 등록 서비스를 지속 전개해 선제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도연 경찰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들썩들썩 한통속' 도시재생 축제

김제시, 요촌 어게인·컬처데이·미니동물원 등 다채로운 주제로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최하고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요촌마을조합)이 주관한 '2024 들썩들썩 한통속 요촌동 소규모 축제'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소규모 축제는 '요촌 어게인', 요촌 컬처데이, 요촌 미니동물원'이라는 주제로 요촌동 포켓공원과 요촌쉼터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7일 첫날 펼쳐진 '요촌 어게인' 행사는 한 여름밤 요촌동의 도심 속 작은 공원에서 펼쳐진 버스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소정 요촌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한 뎀 요촌마을조합 이사장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등장해 요촌동에 대한 추억과 도시재생사업 후의 새로운 요촌동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함께 참여한 100여명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둘째 날은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요촌쉼터에서 '요촌 컬처데이'라는 주제로 펼쳐졌고 약 70여명의 가족단위 주민들이 참여해 '요촌나무'를 함께 꾸미는 그림 그리기 체험과 요촌동의 풍경을 기록하는 사진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9일 마지막 행사는 '요촌 미니동물원'이라는 테마로 토끼, 닭, 거북이, 곤충 등 동물체험 행사와 함께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공예와 풍선아트가 부대행사로 펼쳐져 이날 참여한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처럼 가까운 공원에서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 소포 첫 발송

남원시는 남원우체국, 우체국 공익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의 소포를 12일 첫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쓸 예정이며,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따라서 첫 발송을 시작으로 남원시 사회적 고립 위험군 200가구에 집배원이 2주마다 생필품을 대면 배송하며, 위기상황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남원시에 회신하면 남원시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남원시 회민복지지원팀 박성희 팀장은 "시에서는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 외에도 네이버로보카케어플, KT AI 스피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구나 고립위험 가구 발생시 주민복지과(063-620-6335)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합격자 2명 배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가 2024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 2명을 배출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각 지역대학 우수인재를 지역 공직자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제도로,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한법)과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한다. 원광대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이윤진 씨가 행정 직군, 간호학과 4학년 박성원 씨가 과학기술직군 보건직렬에 각각 합격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를 한 뒤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최근 총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합격자 이윤진 씨는 "좋은 기회로 추천을 받아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취창업지원과에서 필기나 면접시험 준비 과정



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원 씨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고령 선배 위로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김재영)는 12일 11시 전주 백송회관에서 80세 이상 고령 선배들을 초청해 위로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령회원 22명이 참석해 모처럼 만난 동우회 회원들과 정담을 나누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수용자 교정 및 교화를 위해 헌신하다가 퇴직한 교도관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대 안국찬 부총장, 1000만원 발전기금 기부

전북대학교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행정학과 교수)이 77억 원 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기 위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 따르면 12일 오후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부총장은 "개교 77주년을 맞아 정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7억 원 기금 모금이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국찬 부총장의 발전기금은 행정학과 지정기금으로 지정돼 학과 발전 및 인제 양성에 쓰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 송동 연산마을,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남원시 송동면 연산마을(이장 김맹호)은 최근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동아리를 결성해 마을회관 앞에서 동아리 활동을 추진했다. 동아리(회장 김중연) 팀명은 자기계발지원이며, 결성은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연산마을이 선정되면서 시작한 것으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친목 도모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활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교육, 생활 도구 제작 및 보수하기, 전기실무(실습)를 통한 전기점검 방법 등 자기계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재능을 마을의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환 송동면장은 "앞으로도 연산마을 동아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잘 사는 연산마을 조성을 응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주거 취약계층에 쾌적한 주거환경 선물

정읍소재 자활기업 (유)기본봉계와 정읍주거복지센터는 최근 지역사회 소외 이웃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방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 대상 가구는 80세가 넘는 노모를 모시는 부부와 4명의 자녀 등 총 7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노후된 흙벽의 집이었다. 집안에는 흙벽을 뚫고 들어온 바퀴벌레와 집안 곳곳에 구멍이 난 곳으로 쥐가 돌아다니고 있고, 벽장 안에는 지네와 벌레들이 가득해 시에서도 지난 3월부터 고난도 사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청소·방역 전문업체인 (유)기본봉계에 의뢰해 바퀴벌레 등 제거를 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집수리 전문업체인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방안에 쥐가 돌아다니는 쥐구멍을 막아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시에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연계해 주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불 등 침구류 교체에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쾌적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자활기업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구석구석 손길을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협력을 잡아라, 건강데이(day)!를 실시한다. 본 건강교실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1회기(상반기)는 남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2회기(하반기)는 남원시보건소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8회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고혈압·당뇨·콜레스테롤 및 간이 심방세동 기초 검사 △심뇌혈관 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 요가 및 건강 체조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및 구강교육 △우울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아로마테라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